

Scott 비평과 Dickens 비평을 통해 본 F. R. Leavis 문학관의 특징

장 남 수

영어영문학과

(1987. 9. 21 접수)

<要 約>

본고의 목적은 F. R. Leavis의 문학비평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창조성이나 사유의 힘이 위대한 문학작품을 관별하는 그의 기준인데 이것은 '극시로서의 소설'에 대한 그의 일관된 관심과 연결된다. '극시로서의 소설'에 대한 관심은 '시적인 구조를 지닌 것으로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의 극적 형상화'로서 소설작품을 대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기준이 Walter Scott에게 적용될 때 Leavis는 역사소설가로서 Scott가 독창적으로 지니는 장점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는데 이러한 잘못은 유기적 농촌공동체에 대한 생각이나 작품의 유기적 전체성에 대한 그의 집착과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기준이 T. A. Jackson을 위시한 다른 어떤 비평가보다도 Leavis가 Charles Dickens의 창조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준 측면도 있다. 후기에 Leavis가 창조성이나 문명에 대한 작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낭만적 감수성을 중시하게 된 것도 현대의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이 문화의 연속성에 필수불가결한 창조성이나 진정한 사유를 억누른다는 인식이 Leavis에 있어서 점증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Some Characteristics in F. R. Leavis's Literary Criticism Examined in Regard to His Critique on Walter Scott and Charles Dickens

Jang, Nam-Soo

Dept. of English Lang & Litt

(Received September 21, 198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me characteristics of F. R. Leavis's literary criticism. An artist's creativity or 'potency of thought' is Leavis's criterion in evaluating great literary works. This criterion is related with his consistent concern

for 'novel as a dramatic poem', which is his idea to see 'the novel as poetic structure but also as dramatic rendering of man's social interrelations.'

When this criterion is applied to Walter Scott, he overlooks Scott's merits which Scott originally has as a historical novelist. This error, I suppose, is linked with his notion on the organic agrarian community and his adhesion to the organic whole of a work.

However, this criterion makes him pay attention to Dickens's creativity more cogently than any other critic such as T. A. Jackson, and so on. In the later phase, his accentuation on the romantic sensibility which emphasizes creativity or artist's responsibility for civilization reflects his growing awareness that modern 'technologico-Benthamite civilization' represses genuine creativity or thought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continuity of culture.

I. 서론—리얼리즘적 성격

비평가로서 대학교수로서 F. R. Leavis의 최대관심사는 영문학사상 위대하고 창조적이었던 작가의 계보를 정립하고 이 계보가 현대에 갖는 인간적·도덕적 의미를 따져보는 작업이었다. Leavis 자신은 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준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여 뚜렷이 밝히고 있지는 않다.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의 제일장에서 그는 위대한 작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the possibilities of life)¹⁾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준이 실제 작품 평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George Eliot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 등을 통해보면 그가 예술가의 창조성(creativity)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몰개성', '형상화', '구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앎', '성숙도'(impersonality, realization, concreteness, self-knowledge, maturity) 등임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용어만으로는 Leavis의 문학비평이 지니는 독창성과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게다가 그가 영소설의 '위대한 전통'에 속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주요한', '창조적인', '선례가 없는', '의미있는', '탁월한'(major, creative, unprecedented, significant, pre-eminent)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Henry Fielding, Samuel Richardson 같은 18세기 소설가나 Walter Scott, Charlotte Brontë, Thomas Hardy, James Joyce 등 '위대한 전통'에 속하는 작가보다는 한 급 처진다고 판단하는 작가에게는 '주목할만한', '뚜드러진', '영원한', '지적인', '인상적인', '중요한', '고전적인'(remarkable, distinguished, permanent, intelligent, impressive, important, classic)이란 형용사를 각기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Leavis의 판단기준을 추측해 보려해도 쉽게 잡히는 것이 없기는 매일반이다. 그러나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Leavis 스스로가 중요한 개념을 한정해서 정의하려들면 핵심적인 사항을 놓치게되므로 그 용어가 실제 사용되는 용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1) F. R. Leavis, *The Great Tradition*(1948;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2), p. 10.

Leavis의 판단기준을 항목을 세워서 정의하려는 노력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eavis의 문학비평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학이론가와의 대조나 그의 실제비평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Leavis의 소설관이 지니는 특징으로 우선 리얼리즘적 측면을 꼽을 수 있다. 위대한 소설가는 모두 '형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데, 형식이나 스타일을 삶으로부터 유리시킨 채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추구하는 '형식주의자'나 '심미주의자'와 위대한 소설가는 처음부터 다른 부류라는 Leavis의 주장은 자연주의나 예술지상주의에 대한 Lukács의 비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 위대한 작가가 작품에서 달성하는 '형상화'(realization)를 논하는 입장 역시, 세잔느와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논하는 Lukács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형상화'라는 말로 세잔느는 예술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분리불가능성을 의미했다. ... 셰익스피어를 그의 동시대인들 보다 훌륭한 예술가로 만든 것은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지 않은 통일성을 이루었다는 점인데 양자를 분리한다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예술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By "realization" Cézanne meant the indissolubility of the *what* and the *how* in works of art.
... What exalts Shakespeare above his contemporaries is his indissoluble unity of the *what* and *how*; any separation of the two is unimaginable in his art.²⁾

Leavis의 전통론이 T. S. Eliot의 '전통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도 삶이 자신에게 안겨 준 문제와의 대면 속에서 생겨나는 삶에 대한 지극한 도덕적 관심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구성이나 작품전개의 원리³⁾라는 그의 '리얼리즘적' 문학관을 고려해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 Leavis가 생각하는 전통이 매순간 변화하는 살아있고 효과적인 전통임에 반해 「전통과 개인의 재능」(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서 Eliot가 말하는 전통은 실제 역사와는 분리된 개념의 산물이다. 백낙청교수는 T. S. Eliot의 '전통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하나의 '이상적 질서'로시의 과거의 모든 작품과 새로 나오는 작품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곧 '역사의식'이라는 발상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식의 결핍에 해당한다. 이로써 고급의 모든 문학은 일거에 실제 역사로부터 분리된 '그들 간의 이상적 질서'로 둔갑해 버린다. 따라서 엘리엇가 말하는 '전통' 역시 생활 속에 살아있는 전통이 아니라 주로 독서의 대상이자 집필상의 영향문제로 되는, 소외된 현대 지식인의 관념이다. 그리고 '물개성적'(impersonal) 시의 이론은—일부 낭만주의자들의 빛나간 개성론의 비판으로서 사줄 면이 물론 있지만—바로 그러한 비역사적 발상의 표현인 것이다.⁴⁾

2) Georg Lukács, *Writer and Critic*, trans. Arthur Kahn(London: Merlin Press, 1978), p. 19.
본고의 논의상 쫓점을 맞추기 위해 Leavis와 Lukács의 유사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3) *The Great Tradition*, p. 16 참조.

4) 백낙청, 「모더니즘에 관하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pp. 428-9.

‘몰개성이론’이 Eliot에 있어서는 작가의 개성을 가능한 억누르는 것이지만 Leavis의 ‘몰개성’은 삶과 예술에 대한 작가의 성숙한 태도의 표현이자 작가의 개성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전통론이나 몰개성론에서 드러나듯 Leavis의 문학관은 T. S. Eliot의 문학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Leavis 자신이 질서와 기율을 강조하는 Eliot류의 고전주의적 경향보다는 창조성과 작가의 개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강조하게 된다. P. J. M. Robertson은 Leavis가 ‘고전주의적’인 T. S. Eliot와 Lawrence적인 낭만적 상상력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창조성을 중시하는 Lawrence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리비스는 그가 두 작가[T. S. 엘리엇과 D. H. 로렌스—인용자주]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는 핵심적이지만 반대되는 신념을 서로 구별하여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음을 알았다. 엘리엇처럼 리비스는 ‘고전적’ 교육을 받았고 엄격한 ‘고전적’ 훈련으로서 비평의 가치를 믿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엘리엇를 좇아 로렌스의 ‘낭만주의’를 불신했었다. 그러나 로렌스에 못지 않게 리비스도 기실상으로는 비국교도였고 『검토』가 보여주는바대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타개해 나갔다. 그래서 로렌스같이 리비스도 창조성을 강력한 개성의 표현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He found that he was forced to discriminate between the key but contrary beliefs he prized in both writers. Like Eliot, Leavis had a ‘classical’ education, believed in criticism as a rigorous ‘classical’ discipline, and accordingly he at first followed Eliot in distrusting Lawrence’s ‘romanticism’... However, Leavis like Lawrence was by temperament nonconformist and carved his own path in the world, as *Scrutiny* illustrates; and so he came with Lawrence to value creativity as the expression of strong individuality:...

그러나 질서나 유기적 공동체에 대한 미련을 Leavis가 끝까지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다는 점도 사실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Leavis의 Scott와 Dickens에 대한 실제비평을 중심으로 Leavis의 소설관·문학관이 여타의 리얼리즘논의와는 상이하게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Scott 비평—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집착

*The Great Tradition*에서 Leavis가 Scott와 Dickens에 대해 내렸던 평가는 그 이후의 비평활동에서 각기 변모를 겪는다. Dickens의 천재성은 인정하면서도 ‘창조적인 예술가로서의 심오한 책임감’⁶⁾을 결한 작가로 평가하던 입장이 『소설가 디킨즈』(*Dickens the Novelist*)에서는 ‘소설에서의 셰익스피어’(the Shakespeare of the novel)⁷⁾라고 Dickens를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5) P. J. M. Robertson, *The Leavises on Fiction: An Historic Partnership*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1), p. 10.

6) *The Great Tradition*, p. 30.

7) F. R. and Q. D. Leavis, *Dickens the Novelist* (1970,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p. 12.

바뀐다.

*The Great Tradition*의 제일장에서 문학사적 공로만을 인정하는 Fielding, Richardson 등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대적으로 상세히 다루는 Leavis가 Scott는 각주에서만 언급한다. 각주에 나타나는 Scott에 대한 평가는 Scott가 일종의 낭만주의자이고 재능은 있지만 삶이나 예술에 대해 창조적 작가다운 관심이 없으며 문학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친 작가라는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⁸⁾ Leavis가 18세기 작가들과 비교해서 Scott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Fielding, Richardson보다도 Scott의 문학사적 비중을 낮게 잡는 듯하다. 그러나 1961년에 『아담 비드』(*Adam Bede*)의 씨그네트판(Signet edition) 서문을 쓸 무렵에는 과거 경험을 극화하는 방식이나 사투리사용 등이 George Eliot에 미친 영향⁹⁾을 논하는 식으로 Scott의 문학사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수정한다. 브론테자매(the Brontës)에게 Scott가 끼친 영향을 논하는 Q. D. Leavis의 논의¹⁰⁾까지 고려하면 Scott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뀐 셈이다. 워더링 하이즈(Wuthering Heights)의 생활양식이 스리시크로스 그레인지(Thrushcross Grange)의 생활양식에 의해 대치될 수 밖에 없듯이 스코틀랜드의 낭만적 과거가 지닌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멸의 역사적 필연성을 제시했다는 쪽으로 Scott의 ‘낭만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¹¹⁾ 하지만 Scott가 ‘극시로서의 소설’(novel as a dramatic poem)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일급의 작가가 아니라는 인식¹²⁾이나 18세기의 로맨스와 다른 자기 나름의 독특한 형식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작가라는 인식은 불변이다.

Lukács는 Scott가 일급의 ‘위대한 리얼리스트’는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역사소설가로서 Scott의 문학사적 의미를 Leavis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¹³⁾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을 계기로 대중들이 역사를 일반적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유럽에는 근대적 역사의식이 싹트게 되었는데, Scott는 이러한 역사의식과 영국의 상대적 안정성에 기반해 전승되어 온 과거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본격적 역사소설을 완성시켰다. 작가로서 Scott가 일급의 예술가는 아니면서도 역사소설의 선구를 이루는 것은 새로이 생겨난 역사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작법을 그가 완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웨이벌리』(*Waverley*)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Waverley*는 웨이벌리를 주인공으로 비히 이안 보르(Vich Ian Vohr)나 찰스(Charles) 왕자 등의 역사적 영웅은 군소인물로 제시함으로써

8) *The Great Tradition*, p. 14 각주 참조.

9) F. R. Leavis, “*Adam Bede*”, *Anna Karenina and Other Essays* (1967; rpt, London: Chatto & Windus, 1973), p. 51 참조.

10) Q. D. Leavis, Appendix D “*Wuthering Heights* and *The Bride of Lammermoor*” to “A fresh approach to *Wuthering Heights*”,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Novel*, ed. G. Sing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참조.

11) Scott가 낭만주의의 자기 비판을 수행한다는 것은 Q. D. Leavis의 논이지만, F. R. Leavis도 George Eliot에게 Scott가 미친 영향을 논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논의를—상당히 불충분한 수준이지만—펼친 듯하다.

12) F. R. Leavis, “The Americanness of American Literature”, *Anna Karenina and Other Essays*, p. 145 참조.

13) Lukács의 Scott론은

Georg Lukács, *The Historical Novel*, trans. Hannah and Stanley Mitchel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2), Part II, ch. 2, “Sir Walter Scott” 참조.

스튜어트왕가를 지지하는 봉건세력인 토리파와 하노버왕가를 지지하는 반봉건세력인 휘그파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의 핵심과 사회적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 *Waverley*의 예술적 강점은 중도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Waverley*가 자신의 낭만적 기질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 줌과 동시에 몰락할 운명에 처한 고지대 사람들이 갖고있는 우애·신의·온정 등의 미덕과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의상·생활·말 등의 풍속, 그리고 낭만적 과거가 지니는 매력에 주목하면서도 이들이 파멸할 수 밖에 없는 개인적·역사적 정당성을 동시에 포착했을뿐만 아니라 하노버왕가의 질서나 관용에 대해서도 아이러니칼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일 것이다. Scott는 로우즈양(Miss Rose)이 ‘대단한 명예심과 중요성을 지닌 신사’¹⁴⁾라고 평하는 고지부족의 지도자 비히 이안 보르나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찰스왕자의 개인적 장점은 그것대로 인정하면서도 예컨대 비히 이안 보르가 스스로 백작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거나 누이 플로라(Flora)를 *Waverley*와 결혼시키려는 꿈꿨던 등을 제시해서 반란주모자의 인격을 문제시하고 반란군 내부의 알력을 지적함으로써 봉건세력이 파멸할 수 밖에 없음을 필연성을 부여한다. 주인공 *Waverley*는 삼촌 에버라드경(Sir Everard)의 집에서 지낼 때 홍미만을 좇는 독서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부재 등의 성장환경 탓으로 낭만적 기질을 갖게 되었다. *Waverley*가 뚜렷한 정치적 신념없이 군대에 입대하는 동거나 고지대의 반란군 편에 가담하는 까닭도 그의 낭만적 성향과 밀접히 연관된 측면이다.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호프턴(Houghton)이나 가디너 대령(Colonel Gardiner)의 죽음을 목격하고 Flora와 사랑의 경험을 거치면서 *Waverley*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삶의 로맨스가 끝나고 진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60장, 415면 참조) 툴리-비올란(Tully-Veolan)이 브래드워드인(Bradwardine)에게 되돌려지고 반란에 가담했던 *Waverley*를 하노버왕가가 용서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의 결말부는, 하노버왕가의 질서나 관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67장, 463-4면 참조) 기성체제에 대해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한 채 결국 기성체제를 인정하게 되는 Scott의 보수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하우스저(Arnold Hauser)는 Scott가 보수적 정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다루는 이야기의 사회적 배경을 올바르게 묘사하는 ‘리얼리즘의 승리’를 달성했다고 지적하는데,¹⁵⁾ 비히 이안 보르를 위해 자신을 포함한 부족 6명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제안하는 에반 두(Evan Dhu)같은 봉건세력의 미덕에 주목하면서도 이들이 파멸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제시하는 Scott의 문학적 성취에 비추어볼 때 타당할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Scott가 최고급의 작가는 아님을 인정하더라도, 근대적 역사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역사소설의 형태를 그가 획득했다는 Lukács의 지적과 Leavis의 Scott 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실재한다. Leavis는 *The Great Tradition* 일장에서 위대한 작가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려에서 나오는 자기 나름의 형식을 획득한 작가임을 강조한다.

이 전통에 속한 위대한 소설가들은 모두 ‘형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지니

14) Walter Scott, *Waverley*, ed. Andrew Hook(Harmordsworth: Penguin Books, 1972), ch. 15. p. 127. 이 하 본문 인용은 이관에 준함.

15) A. 하우스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편 下』, 염무웅·반성완 공역(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1), pp. 251-2 참조.

Lukács도 Scott에 있어서 ‘리얼리즘의 승리’를 지적한다. *The Historical Novel*, pp. 58-64 참조.

고 있다. 위대한 소설가들의 기법이 매우 독창적인 것은 이들이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과 진행방식을 개발하는 데 자기의 천재성을 바쳤기 때문이다.

The great novelists in that tradition are all very much concerned with 'form'; they are all very original technically, having turned their genius to the working out of their own appropriate methods and procedures.¹⁶⁾

Scott가 역사소설의 '형식'을 완성시킨 작가라는 점이나 *Waverley* 1장 서문에서 당대에 유행하던 피와 공포 이야기, 마법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이야기, 여주인공을 다루는 이야기나 사교계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60년 전의 일로 한정시켜서 인물들과 이들의 감정(characters and passions of the actors)을 다루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이를 실제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Scott가 자기 나름의 독특한 형식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작가라는 Leavis의 지적은 아무래도 부당한 듯하다. 그런데 Scott에 대한 Leavis의 평가가 단순히 개별 작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면 커다란 문제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Leavis 비평전체의 어떤 문제점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 문제점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을 듯하다. Leavis가 소설을 판단하는 '극시로서의 소설'이라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Scott가 처지는 작가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Scott에 대한 Leavis의 부당한 평가 이면에는, 유기체적 농촌사회를 이상사회로 생각하고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Leavis의 기본입장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작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듯하다. 말을 바꾸면, *Waverley*가 군대에 입대하기 이전이나 Vich Ian Vohr가 처형된 이후에 작가가 전면(前面)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과 *Waverley*의 정신적 성장을 그리면서 당시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제시하는 두 축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한 극으로 치달는 부분들이 '극시로서의 소설'을 생각하고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Leavis에게 결점으로 비친 것은 당연하지만,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Leavis의 비평태도가 *Waverley*가 갖는 형식적 독창성까지도 간과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III. Dickens 비평—예술가의 창조성과 사유의 힘에 대한 강조

평론가 Lukács는 Scott가 18세기의 사회소설가보다는 한 급 위이고, Balzac이나 Dickens 등의 '위대한 리얼리스트'보다는 한 급 아래인 작가이며 18세기 사회소설가의 성취를 수용하고 소화해서 19세기 '위대한 리얼리스트'에게 이어준 교량 역할을 한 작가라고 평가한다.

위대한 사회소설에서 생겨난 역사소설의 고전적 형태는 의식적인 역사적 태도에 의해 풍부해져서 다시 사회소설로 흘러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사회소설의 발달이 역사소설을 처음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소설이 사회소설을 진정한 현재의 역사로, 풍속에 대한 정당한 역사로, 18세기 소설이 그 가장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미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its classical form arises out of the great social novel and then, enriched by a conscious historical attitude, flows back into the latter. On the one hand,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16) *The Great Tradition*, pp. 16-17.

novel first makes possible the historical novel: on the other, the historical novel transforms the social novel into genuine history of the present, an authentic history of manners, something which the novel of the eighteenth century was already striving for in the works of its most eminent representatives.¹⁷⁾

Scott가 Dickens보다 한 급 아래의 작가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을 듯 하다. 작가로서의 Scott가 ‘리얼리즘의 승리’를 달성했지만 그의 보수적 정치의식이 기성체제에 대해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지는 못하도록 가로막았음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에 반해 현실의 상호관계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목한 Dickens가 기성체제를 뿌리로부터 비판하는 민중적 시각을 가진 작가라는 사실이 역사의식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Scott와 Dickens의 차이인 것이다.

*The Great Tradition*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기준에서 Austen, George Eliot, James, Conrad, Lawrence로 이어지는 영소설의 ‘위대한 전통’을 논한 Leavis는 Dickens에 대한 재평가를 계기로 William Blake, Dickens, Lawrence로 이어지는 영문학의 연속성에 주목하게 된다.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 하는 Leavis에게 평가기준의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현대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technologico-Benthamite civilization)에 대한 문제의식의 심화와 심화된 문제의식의 반영으로서 예술이나 삶의 창조성(creativity), 그리고 사유(though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변화가 생긴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강조점의 이동이 생기는 실마리는 1947년에 집필한 『『어려운 시절』론』(*Hard Times: An Analytic Note*)이다. ‘극시로서의 소설’이라는 일관된 의도하에 이후 몇차례에 걸쳐 계속된 썬더즈의 첫논문인 이 글에서 Leavis는 빅토리아시대의 비인간적 문명이 공리주의철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Dickens의 근본적 시각에 입각한 비판과, 썬더즈 주프(Sissy Jupe)나 썬더즈 집단의 극적 기능에 주목하여 Dickens 예술의 시적이고 극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Hard Times*를 바라보는 평가기준이 Dickens의 전작품과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는 데 확대 적용되면서 Leavis의 문학관은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블레이크와의 친화성을 논하는 글인 「디킨즈와 블레이크 : 『리틀 도리트』」(*Dickens and Blake: Little Dorrit*)가 리비스 소설 비평에서 최정점에 위치하게 된다.

Leavis는 “소위 ‘소설’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허구적 산문의 분야에서 우리는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와 연결짓는 집중과 유연성의 가능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in our preconceptions about ‘the novel’, we may miss, within the field of fictional prose, possibilities of concentration and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life such as we associate with Shakespearean drama)¹⁸⁾고 지적하면서 소설을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와 연결지어 극시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Hard Times*論』이후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 ‘극시로서의 소설’이라는 개념은 소설작품을 등장인물이나 플롯의 직선적 서술로서가 아니라 ‘시적인 구조를 지닌 것으로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의 극적 형상화’(the novel as poetic structure but also as dramatic rendering of man’s social interrelations)¹⁹⁾로서 읽겠다는 의도인데

17) *The Historical Novel*, pp. 200-1.

18) *The Great Tradition*, p. 276.

19) P. J. M. Robertson, 위의 책, p. 132.

『*Little Dorrit*』에서는 삶을 부정하는 세력과 삶을 긍정하는 세력 간의 대비를 통해 Dickens의 창조성이 삶을 긍정하는 쪽에 놓여 있음을 밝히고 있다.

Grahame Smith는 *Little Dorrit*의 ‘감옥’ 이미지가 *Bleak House*의 대법정이나 *Our Mutual Friend*에 나오는 쓰레기더미 이미지에 비해 인간을 속박하는 상황과 그 속에서 인간이 억눌리고 갇혀있는 느낌,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내부에 만들어가는 감옥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작품전체를 거머쥐는 효과적인 상징임을 거듭 주장한다.²⁰⁾ 번문욕례청(Circumlocution Office)이 ‘일을 하지 않는 방법’(How Not To Do It)에 정통함으로써²¹⁾ 도이스(Daniel Doyce)나 윌리엄 도리트(William Dorrit) 등 수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 주인공 클레남(Arthur Clennam)을 비판적이고 환멸에 찬 인물로 만드는 클레남부인이 대표하는 가정 환경과 이 가정환경이 빅토리아시대 문명의 본질적 측면인 켈빈적 상업주의와 인간적 삶을 억압하는 이윤추구와 연결된 면을 Dickens는 지적한다. 또한 상류사회에 대한 열망이나 상류사회적인 우월감과 외모 중시가 자신의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된 윌리엄 도리트와 미글즈씨(Mr. Meagles)의 모습, 공허한 상류사회를 대표하는 바나클 일족(the Barnacles), 사이비 예술가로서 상류사회와 연결된 헨리 가윈(Henry Gowan), 머들부인과의 결혼을 통해 상류사회의 매너와 부르조아지의 금력이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위조꾼이요, 도둑에 불과한 대부호 머들씨(Mr. Merdle), 신사이상에 대한 비평 등 *Little Dorrit* 전체가 유기적 통일을 이루면서 ‘영국적 삶에 대한 일관된 비평’(the sustained criticism of English life)²²⁾을 행하고 있다. 삶을 위협하는 세력의 반대편에 서있는 주요인물 중의 하나인 리틀 도리트는 순진함과 착함의 덕성을 대표하는데 Leavis는 에이미(Amy)의 삶이 지닌 창조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녀야말로 실제 의미있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의 현실성을 테스트하는 시금석’(the test of reality for the others)²³⁾임을 강조한다. Dickens는 리틀 도리트의 덕성이 영감적으로 타고난 것임을 강조하는데(1권 7장, 59면 참조) 정확한 현실반영을 문제삼는 리얼리즘론에서 에이미의 이런 측면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²⁴⁾ 에이미가 지니는 극적 힘에 주목할 수 있는 Leavis의 입장과 정확한 반영을 증시하는 리얼리즘론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Leavis의 비평이 지닌 강점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삶을 긍정하는 쪽에는 에이미 도리트 이외에도 발명가 도이스와 그를 창조적 예술가로 제시하고 가윈을 사이비 예술가로 제시한 작가 Dickens의 창조성 등이 포함되는데 Leavis는 *Little Dorrit*란 작품에 나타나는 창조적 예술가 Dickens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헨리 가윈과 대립하고 그를 자기매김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리틀 도리트』에 존재하는

20) Grahame Smith, *Dickens, Money, and Society*(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8), p. 164, p. 190 등 참조.

21) Charles Dickens, *Little Dorrit*, ed. Harvey Peter Sucksmith(Oxford: Oxford Univ. Press, 1982), 1권 10장 참조. 이하 본문 인용은 이판에 준함.

22) *Dickens the Novelist*, p. 285.

23) 같은 책, p. 298.

24) 일례로 T. A. Jackson같은 좌파비평가는 *Little Dorrit*를 악당과 선한 자들 사이의 투쟁이라는 일종의 알레고리로 파악하여 Dickens가 사회적 힘들을 극화하는 능력을 가진 탁월한 리얼리스트임을 결과적으로 간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T. A. Jackson, *Charles Dickens: The Progress of a Radical*(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37), pp. 165-69 참조.

—그것도 구체적으로—것이다. 이 진정한 예술가는 그가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디킨즈 자신으로서 즉, 창조적 디킨즈로 존재한다.

...opposing and placing Henry Gowan, the real artist is present in *Little Dorrit*—concretely present. He is present, the only way he *coule* be, as Dickens himself, the creative Dickens.²⁵⁾

개개 인물이나 사건, 묘사가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지니도록 만든 Dickens 예술의 시적이고 극적인 면모를 지적하면서 Leavis는 작가로서 디킨즈의 천재성은 ‘심오하고도 미묘한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a capacity for profound and subtle thought)²⁶⁾임을 거듭 강조한다. Dickens의 천재성을 Leavis가 오웰(George Orwell), 험프리 하우스(Humphry House), 하우스 등 기존 비평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문학비평가로서 문명비평가로서 Leavis 자신의 예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극시로서의 소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언어의 시적이고 극적인 용법을 강조함으로써 주제나 의미가 극적으로 제시되는 구성방식²⁷⁾에 주목할 수 있었던 그의 소설론의 강점과도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우리는 Leavis가 후기로 갈수록 낭만주의적 경향을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변화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변화의 이유는 이미 지적했듯이 낭만주의가 ‘삶에 대해 두드러진 책임의식’(a distinctive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life)²⁸⁾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인 듯하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업화가 초래한 비인간화 경향에 주목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것을 자신들의 과제로 삼았는데 Blake야말로 민중적 감수성에 의거해서 산업화가 초래한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한 작가인 것이다. 김종철 교수는 낭만주의의 비판적 전통이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카알라일(Thomas Carlyle)이나 러스킨(John Ruskin) 같은 사회사상가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고 지적하는데²⁹⁾ 낭만주의 시인들이 점차 예술이나 상상력 속으로 탐닉해 들어간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 보면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카알라일이 부의 집중,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 현상과 산업화가 인간의 사고와 감정, 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문제해결의 열망이 결국 민중을 잘 제도할 영웅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민중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삶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을 책임있게 수행한 Dickens를 Blake의 진정한 계승자로 꼽을 수 있을 듯 하다. Leavis가 낭만주의 이후에 이르러 영어의 창조적 힘이 산문소설로 넘어갔다는 점을 지적하고³⁰⁾ Blake, Dickens, Lawrence에서 영문학의 의미있는 연속성을 발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Blake가 ‘18세기의 지배적 정신이 대표하는 창조성의 억압에 대항하여 삶을 대표한 인간적 저항자’(the human protest on behalf of life against the repression of creativity represented by the prevailing ethos of the 18th century)³¹⁾ 라는 지적은 ‘『리를 도리

25) *Dickens the Novelist*, p. 322.

26) 같은 책, p. 287, p. 290 등 참조.

27) F. R. Leavis, “Tragedy and the ‘Medium’”, *The Common Pursuit*(New York Univ. Press), p. 123 참조.

28) *Dickens the Novelist*, p. 359.

29) 김종철, 「낭만주의의 비판적 전통」, 『세계의 문학—1981년 봄』(서울 : 민음사), p. 87 참조.

30) F. R. Leavis, *English Literature in our Time and the University*(1969; rp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p. 86 참조.

31) 같은 책, p. 52.

트』야말로 기술공학적·벤삼적 세계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와 대결한 것이다'(Little Dorrit confronts the technologico-Benthamite world with a conception of man and society to which it is utterly blank.)³²⁾는 지적과 동일선상에 있는 논의인 셈이다. 현대문명의 본질적 문제점을 Leavi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대문명은 이것이 사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그러한 사유를 지독하게도 결하고 있는데 현대문명이 상실한 사유는 바로 창조적 작가가 보여주는 종류의 창조성을 생기게 하는 사유인 것이다. (강조는 원저자)

...our civilization desperately lacks the thought it has lost the power even to recognize as thought—the thought that entails the creative writer's kind of creativity.³³⁾

현대문명에 대한 Leavis의 문제의식과 관련지를 때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technologico-Benthamite civilization'이라는 용어에서 'Benthamite'라는 부분이다. 초기에는 현대문명을 '대중문명'(mass civilization)이라고 평범하게 칭한 Leavis가 현대문명의 근본적 문제가, 개인과 사회 간에 '원자적 관점'을 초래하는 '세목(細目)으로 나누는 방법'(method of detail)을 중시한 Bentham의 방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대중문명'이나 '공리주의적(Utilitari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Bentham의 이름을 따서 'Benthamite'라고 지칭한 것이다. 『벤삼과 코올리지에 대한 밀의 견해』(*Mill on Bentham and Coleridge*)라는 책 서문에 서 Leavis는 Bentham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벤삼의 방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세목으로 나누는 방법'(method of detail)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전체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추상적 개념은 사물로 분해해서 다루는 방법인 것이다. 말을 바꾸면 전체적인 분류나 통칙을 이것이 구성된 각각의 개별입자로 구분해서 다루고 질문이 제기되면 그 질문을 해결하려 시도하기도 전부터 질문을 각 부분으로 쪼개서 다루는 방법이다. ...벤삼은 살인이나 방화, 강도행위가 유해한 행위라는 사실도 증거가 없이는 받아들여려하지 않을 것이다.

Bentham's method may be shortly described as the method of detail : of treating wholes by separating them into their parts, abstractions by resolving them into Things, —classes and generalities by distinguishing them into the individuals of which they are made up, and breaking every question into pieces before attempting to solve it, ... That murder, incendiarism, robbery, are mischievous actions, he will not take for granted without proof : ...³⁴⁾

개인과 사회를 원자적으로 분해하고 최소의 단위로 환원시켜, 수량적으로 인간의 모든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은 Bentham의 방법이 오늘날 '컴퓨터공학'의 특징적 방법을 보여준

32) *Dickens the Novelist*, p. 355.

33) F. R. Leavis, *Thought, Words and Creativity: Art and Thought in Lawrence*(London: Chatto & Windus, 1976), p. 93.

34) F. R. Leavis, ed., *Mill on Bentham and Coleridge*(1950; rp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0), p. 48.

다고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창조성이나 인간 고유의 사유와는 반대쪽에 위치한 컴퓨터가 대표하는 현대문명을 Leavis가 'Benthamite'라고 지칭한 것은 뛰어난 식별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낭만주의적' 작가가 보여주는 문명에 대한 인간적 책임감을 논하는 리비스의 입장과 일반적인 낭만주의 예술가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할 듯하다. 산업화라고 통칭할 수 있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대다수 낭만주의자의 비판이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킨 채 회고적 시각에서 진행됨에 반해 Leavis의 현대문명비판은 이들이 하는 비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Leavis는 T. S. Eliot가 제기한 '감수성의 분열'(dissociation of sensibility)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17세기에 서구문명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적한다.³⁵⁾ 산업화 자체가 봉건경제의 모순에서 배태된 자본주의경제의 내적 논리의 관철이라면 현대문명의 뿌리를 18세기의 실증주의적 문화에서 찾지 않고 16세기부터 시작된 문명의 변화와,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에서 찾은 것은 지극히 역사적이고 정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Leavis의 Scott 비평을 논하면서 그에게는 유기체적 농촌사회에 대한 미련과 이와 연관된 문제로 작품의 다른 장점을 못보게 만드는 유기적 통일성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Leavis 스스로가 '유기적 공동체'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논의이거나 세상에서 기계를 쓸어없애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단지 구질서에 대한 기억이 정말 새롭고 인간에게 유익한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자극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R. P. Bilan은 Leavis의 '유기적 공동체'론이 지닐 수 있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리비스는 이런 주장[유기적 공동체가 지닐 수 있는 현재적 의미에 대한 주장—인용자주]을 자주 반복했다. ...리비스의 초점은 현재에 놓여있는 것이며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현재를 과거에 단순하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러스킨같은 사상가에게 있어서는 가끔가다 현재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엿보인다.) 리비스가 내세우는 주장은 과거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조건이고 만약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희망이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거는 인간에게 모범형을 제공하는데 모범형이란 것이 모방할 대상으로서의 모범형이 아니고 인간적 가능성에 대한 느낌과 현재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창조적으로 충동질하는 자극제로서의 모범형인 것이다.

Leavis frequently reiterated this point—... . Leavis's focus is on the present, there is no desire on his part(as there is at times in Ruskin, say) to escape from the present into the past, nor to make the present simply accord with the past. But he does insist that awareness of the past is the essential condition under which there can be any hope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if we forget the past there can be no hope. The past provides us with a model, not as something to be imitated, but as offering a sense of human possibilities, a creative stimulus to further living in the present.³⁶⁾

35) *English Literature in our Time and the University*, 2장과 3장 참조.

36) R. P. Bilan, *The Literary Criticism of F. R. Leavis*(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p. 18.

결국 Leavis의 현대문명비판이 대다수 낭만주의자들의 비역사적 발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Leavis의 '미련'과 '집착' 역시 통상적인 유기체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손쉽게 비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V. 결 어—Leavis식 대안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극시로서의 소설'이라는 기준을 작품에 적용하는 Leavis의 소설비평은 Scott같은 작가의 독창성을 제대로 못보게 만든 면도 있지만 작품 전체에서 울려나오는 Dickens의 창조성을 일반적인 리얼리즘론에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준 면도 있었다. 그리고 창조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점차 높이 평가하는 강조점의 이동은 현대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이 창조성과 사유를 억누른다는 Leavis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도 살펴보았다. 이제 위대한 문학을 배태하고 이것이 생명력을 보존하는 토양인 '교양있는 교육받은 사람들'(educated public)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현대문명에 대한 Leavis식 대안의 요체는 인간적 가치를 풍부히 담고 있는 문학작품교육을 통해 '교양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³⁷⁾ Leavis 자신이 현대문명의 폐해를 막을 방책으로 훌륭한 영문학부를 가진 좋은 대학—교양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양성하는—이상의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투의 비판에 대해 자신이 강조하는 문학관·언어관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강조한다는 사실이나³⁸⁾ '교양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내세운 근본의도가 예술가의 창조성과 사회전반의 창조성 사이의 상호연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Leavis의 대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교양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이런 대중을 가꿔나가겠다는 생각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로부터 해답을 찾는 소극적 전략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교육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아니라 사회 속의 일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이글턴의 리비스 비판이 타당한 듯하다.

리비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피폐한 문화를 낳은 기계화된 사회를 변형시키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견디어내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토」는 시작부터 기권했다고 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유일한 희망은 진용을 갖춘 교양있는 소수가 문화의 햇불이 현대의 황무지에서 계속 타오르도록 유지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 그 햇불을 후손에 물려주리라는 것이었다. … 교육은 결국 사회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부분'이다.³⁹⁾

그러나 이글턴의 Leavis 비판은 Leavis가 '엘리트주의적'이라거나 '정치적 해결책을 숙고하기

37) *English Literature in our Time and the University*, 서문과 1장 참조.

38) F. R. Leavis, *The Living Principle: 'English' as a Discipline of Thought* (London: Chatto & Windus, 1975), pp. 49~51 참조.

39)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김명환의 공역(서울 : 창작사, 1986), p. 48.

를 싫어했기 때문에 관념적인 해결책을 신봉한다'든가 '소설을 소설아닌 다른 것으로 다룬다'는 등 Leavis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비판이 주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비판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Leavis의 대안이 소극적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Leavis가 제기하는 문제제기 자체의 타당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주의 내지는 계렬라전법'(opportunism)⁴⁰⁾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행동방식임을 강조하는 Leavis의 입장이 현대 서구사회에 대한 정당한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면 벤삼문명에 대한 Leavis의 문제의식과 Leavis식 대안을 현실과 결부시켜 구체화시킬 책임은 벤삼문명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떠맡겨지는 것이다.

40) *Thought, Words and Creativity*, 서문과 *The Living Principle*, 1장 "Thought, Language and Objectivity" 참조.

참 고 문 헌

I.

- Dickens, Charles. *Little Dorrit*. ed. Harvey Peter Sucksmith. Oxford: Oxford Univ. Press, 1982.
 Scott, Walter. *Waverley*. ed. Andrew Hook.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II.

- Altick, Richard D.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3.
 Bilan, R. P. *The Literary Criticism of F. R. Leavi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Devlin, D. D. *Modern Judgements: Walter Scott*. Nashville: Aurora Publishers, 1970.
 Jackson, T. A. *Charles Dickens: The Progress of a Radical*.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37.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George Eliot, Henry James, Joseph Conrad*. 1948;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2.
 _____. *The Common Pursuit*. New York Univ. Press.
 _____. *Anna Karenina and Other Essays*. 1967; rpt. London: Chatto & Windus, 1973.
 _____. *English Literature in our time and the University*. 1969; rp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_____. *The Living Principle: 'English' as a Discipline of Thought*. London: Chatto & Windus, 1975.
 _____. *Thought, Words and Creativity: Art and Thought in Lawrence*. London: Chatto & Windus, 1976.
 _____. ed. *Mill on Bentham and Coleridge*. 1950; rp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0.
 Leavis, F. R. and Q. D. *Dickens the Novelis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0.
 Leavis, Q. D.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Novel*. ed. G. Sing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Lukács, Georg. *The Historical Novel*. trans. Hannah and Stanley Mitchel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2.
 _____. *Writer and Critic*. trans. Arthur Kahn. London: Merlin Press, 1978.
 Robertson, P. J. M. *The Leavises on Fiction: An Historic Partership*.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1.
 Smith, Grahame. *Dickens, Money, and Socie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8.
 김종철. 「낭만주의의 비판적 전통」. 『세계의 문학—1981년 봄』. 서울: 민음사.
 한국영어영문학회 편. 『19세기 영국소설 연구』. 서울: 민음사, 1981.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이글턴, 테리. 『문학이론입문』.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서울: 창작사, 1986.
 하우스, A.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편 下』. 염무웅·반성원 공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_____.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백낙청·염무웅 공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4.